’19년 12월
아랍에미리트(UAE) 주요 경제 동향

2020. 1. 7

1. 경제일반 / p.1

2. 산업 / p.6

3. 자원·에너지 / p.9

4. 건설・플랜트 / p.10

5. 농업・식품 / p.14

주 아랍에미리트(UAE) 대사관

1. 경제일반

□ (경기지수) 주재국의, **19.11월 구매자관리지수**(PMI)*가 **50.3**을 기록한 바, 동 수치는 09.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

* 그동안 두바이 최대은행인 **Emirates NBD**에서 **비석유부문 경기동향 지수**(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소매업 등 대상)**인 구매자관리지수**(Purchasing Manager's Index)를 발표해왔으나, **금년 8월부터 미발표**

- 다만,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IHS Markit이 계속 발표 중인바, 언론 보도 등 요약

<UAE의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>

19.2월	19.3월	19.4월	19.5월	19.6월	19.7월	19.8월	19.9월	19.10월	**19.11월**
53.4	55.7	57.6	59.4	57.7	55.1	51.6	51.1	51.1	**50.3**

○ PMI 지수가 19.7월에는 50대 중반을 기록했으나, 이후 50대 초반으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, IHS Markit의 경제학자 David Owen은 다음과 같이 언급

- 19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가격 할인(price discount)이 수요를 일정정도 견인하여 50대 중반의 PMI 수치를 기록하였으나, 이제는 가격 할인이 그 효과가 없어 보임(ineffectual)

- 특히, 그 동안 50을 꾸준히 상회해 왔던 신규 주문(new order)이 19.11월 50미만(전월 대비 감소했음을 의미)을 기록

- 아울러, 대금 지불 문제도 여전히 이슈가 되면서 생산자의 제품 인도(delivery)가 늦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

- 다만, 기업들의 전반적인 판매 감소가 소폭 수준(marginal)인 바, 주재국 비석유부문이 현재의 경기 부진 상황을 견뎌낼 가능성이 있음
(non-oil private sector might be able to endure a period of contraction)

○ 향후 사업전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업들이 Expo 2020*을 기대하면서 향후 1년 동안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변

* 20.10월~21.4월까지 개최되며, 25백만명의 방문객 추정(70% 외국인)되며, 주재국 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□ (소비자물가) 주재국의 **소비자물가지수**를 보면, 19.1월부터 지속적으로 **디플레이션**을 보여주고 있는데, 19.11월도 주재국 소비자물가지수가 **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짐**

○ 연방통계청이 아직까지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, **아부다비와 두바이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모두 마이너스**를 기록함에 따라, 주재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도 마이너스 예상

- **아부다비는 금년 1월부터 마이너스 물가**를 기록하다 **5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(+0.5%)** 하였으나, **6월부터 다시 마이너스 물가 기록 중인데, 19.11월에는 - 0.3% 기록**

* **아부다비** 소비자물가(전년 동월 대비) : 18.12월 1.2%, 19.1월 –0.9%, 19.2월 –0.8%, 19.3월 –0.8%, 19.4월 –1.3%, 19.5월 0.5%, 19.6월 –0.2%, 19.7월 –1.4%, 19.8월 –1.2%, 19.9월 –1.8%, 19.10월 –1.1%, **19.11월 –0.3%**

- **부동산 임대료 하락** 등이 아부다비보다 심각한 **두바이**는 **18.12월부터 마이너스 물가**를 기록 중인데, **19.11월 부동산 가격 하락*** 등의 영향으로 **-2.75%** 기록

* UAE 부동산자료제공기관인 Property Monitor에 따르면, 19.11월 스퀘어피트 당 가격이 895디르함으로 하락(최근 7년간 가장 낮은 수준)

** **두바이** 소비자물가(전년 동월 대비) : 18.12월 -0.37%, 19.1월 –3.61%, 19.2월 –3.91%, 19.3월 –3.63%, 19.4월 –2.87%, 19.5월 –2.61%, 19.6월 –2.68%, 19.7월 –3.04%, 19.8월 –2.97%, 19.9월 –2.87%, 19.10월 –2.80%, **19.11월 –2.75%**

<주재국 전체 소비자 물가 추이(전년 동월 대비, 연방통계청)>

18.12월	19.1월	19.2월	19.3월	19.4월	19.5월	19.6월	19.7월	19.8월	19.9월	19.10월	19.11월
0.34%	-2.39%	-2.53%	-2.48%	-2.09%	-1.09%	-1.49%	-2.22%	-2.04%	-2.17%	-1.86%	n.a.

□ (통화 및 은행 지표) 주재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19.11월 주재국 통화 지표를 보면, **M1**(현금 + 요구불 예금)은 **1.3% 증가**, **M2**(M1 + 저축성 예금 + 거주자 외화예금)는 **0.6% 증가**, **M3(M2 + 정부 예금)는 0.1% 증가**

* M1 : (10월) 5,057억 디르함 → (11월) 5,121억 디르함
M2 : (10월) 1조 3,727억 디르함 → (11월) 1조 3,805억 디르함
M3 : (10월) 1조 6,809억 디르함 → (11월) 1조 6,823억 디르함

○ M3 중 **정부예금**(정부의 중앙은행 예금과 일반은행 예금 합계)은 **3,018억** 디르함으로서 전월대비 **64억 디르함 감소**

<정부 예금 추이(단위 : 억 디르함)>

15.12월	16.12월	17.12월	18.12월	19.1월	19.6월	19.9월	19.10월	19.11월
1,560	1,859	2,109	2,939	2,976	2,944	3,186	3,082	3,018

○ 한편, 11월 은행 부문 **총신용(총대출)**은 **1조 7,219억 디르함**으로서 10월(1조 7,085억 디르함) 대비 **0.8% 증가**

- 이중 **민간부문 신용(대출)**은 **1조 1,412억 디르함**으로서 10월(1조 1,416억 디르함) 대비 **0.04% 감소**

□ (19년 성장률 전망) 주재국 중앙은행은 19년 3분기 보고서에서 금년 **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2.3%, 석유부문 4.9%, 비석유부문 1.4%로 제시**

○ **19년 2분기 보고서와 비교**해보면 **비석유부문 전망치는 1.4%로 동일**하며, 석유부문 전망치가 5.0% → 4.9%로 약간 하락

<주재국 중앙은행의 19년 성장률 전망치)>

	전체 성장률	석유부문 성장률	비석유부문 성장률
19.1분기 보고서	2.0%	2.7%	1.8%
19.2분기 보고서	2.4%	5.0%	1.4%
19.3분기 보고서	**2.3%**	**4.9%**	**1.4%**

* **18년 성장률 : 전체 1.7%**, 석유부문 2.8%, **비석유부문 1.3%**

□ (2020년 두바이 예산) 두바이 정부는 **20년 예산**을 **전년 대비 16.9% 증가한 664억 디르함**으로 책정

○ 두바이 정부는 **과거 18년 예산을 대폭 증액**한 바 있는데, **20년 예산**도 **EXPO 2020의 성공적 개최와 최근 경기 부진 상황을 탈피**하기 위해 대폭 증액한 것으로 보임

* 연도별 추이 : **18년 566억 디르함**(전년대비 +19.5%) → **19년 568억 디르함** (전년대비 +0.35%) → **20년 664억 디르함**(전년대비 +16.9%)

○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, **경제・인프라・교통***에 전체예산의 **46%**가, **사회발전**(보건, 교육, 주거, 여성 및 아동보호)에 전체예산의 **30%**가, **치안・사법・안전**에 전체예산의 **19%**가 배분됨

* 건설 프로젝트에는 전체예산의 12%가 투입

- 한편 **총지출의 3%를 특별유보금**으로 책정하여 **EXPO2020과 관련한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**에 사용하기로 함

○ **20년 세입**(Revenue)은 **640억 디르함**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, **24억 디르함 적자**가 예상되는데, 두바이 정부는 **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**을 **총지출의 5% 수준**으로 유지하겠다고 함

* 두바이 정부 채무는 19.9월 기준 320억불 수준(GDP 대비 채무비율 27.9%)

□ (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) 주재국은 18.11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개시했는데, 첫해에 **283만건의 환급 신청**이 있었으며 1일 신청건수도 시행초기 3,800건에서 현재 7,730건 수준으로 증가

○ 주재국 연방국세청에 따르면, **동 환급시스템에 연결된 판매점**이 전국적으로 **1만 2천개**이며, 외국인관광객은 **6개 공항 및 12개 항구**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

- 외국인관광객이 **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 한도가 없으나,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7천 디르함**이 1일 최대한도임

○ 참고로, **19.1월~9월간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도착한 외국인관광객 수**는 **약 1,588만명**(중앙은행 3분기 보고서)

- 세계여행관광협회(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)가 최근 발표한 도시별 **외국인 방문객의 연간 지출규모**를 보면, **두바이가 총 279억불로서 세계 3위** 수준(홍콩 총 439억불, 마카오 361억불)

□ (전자담배, 설탕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시행) 주재국은 **19.12월**부터 **전자담배(세율 100%)와 설탕음료(세율 50%)**에 개별소비세를 부과

○ 주재국은 **17.10월**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(죄악세 성격) **담배・에너지음료(세율 100%), 탄산음료(세율 50%)**에 개별소비세(Excise Tax)를 도입한 바 있으며,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임

부과주체	대상	세율	시행시기	비고
연방정부	담배	100%	17.10월	동 개별소비세는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종가세
	전자담배 (궐련, 액상, 도구류)		**19.12월**	
	에너지음료		17.10월	
	탄산음료	50%	17.10월	
	설탕음료		**19.12월**	

○ 이번 세제개편으로 담배 관련 과세대상이 기존 궐련(cigarette) 및 중동지역 물담배인 시샤(Shisha) 등에서 전자담배(궐련 및 액상) 및 그 도구류까지 확대

- 기존 '담배 및 담배 제품'의 정의에 전기 가열식 담배(electrically-heated cigarettes)를 추가하였고,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액상형 전자담배, 전자담배 도구류는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명시

2. 산업동향

□ **(무바달라 중국 투자 확대)** 아부다비정부 산업투자기관인 무바달라는 세계2위 경제대국이면서 시장 매력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투자기회를 더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고 Waleed 부사장이 언급함.

○ 그는 중국개발은행과 100억달러 펀드를 설립했고 이미 16개 부문에 20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훌륭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함

- 중국이 최대 경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무바달라의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함.

○ 현재 무바달라가 관리하고 있는 2,400억달러 자산 중 최대 투자처는 미국으로서 1,000억달러가 투자되었고, 나머지 1,400억달러는 UAE, 유럽, 아시아(중국 위주)로 분배되어 있다고 설명함.

□ **(4차산업혁명위, 14개 과제 채택)** UAE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 내에서 첨단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정책과제를 채택함

○ 14개 정책과제는 4차산업혁명 도구들의 활용을 촉진하는 플랫폼, 시스템, 응용프로그램, 정책 및 전략, 능력개발, 심층연구를 포함

- 이 중 UAE개발기술촉진위원회가 담당할 6개 과제(소관부처)로는

· UAE내 지적재산권 지주회사(경제부),
· 4차산업혁명 국가정책(교육부),
· 미래공장 4.0 시상제도(에너지산업부),
· 기술정책 우선(인적자원부),
· 국제이동통신 5G(통신규제청),
· 4차산업혁명 도전 워크샵 및 파일럿 아이디어마켓(인공지능부)

- 신기술적용위원회가 담당할 8개 과제는 곧 발표될 예정

□ **(화웨이와 협력하여 5G 랩 출범)** UAE 통신규제청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하여 5G/IoT 공동 오픈랩을 두바이 미디어시티에 설립함

ㅇ 화웨이는 이 오픈랩 플랫폼을 통해 세계의 고객 및 파트너와 산업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며, 여기에는 인공지능, 고정식 무선접근, 보안카메라, 클라우드 컴퓨팅, 가상현실이 포함됨.

ㅇ 통신규제청은 UAE의 혁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제조사들도 이와 유사한 랩을 발족시키도록 초청하였다고 밝힘.

□ **(외국계 회사, 100% 소유로 전환 가능)** 2020년 UAE 기업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계 회사들이 UAE 파트너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%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

ㅇ UAE 정부는 2019년에 특정 분야의 사업에 적용되도록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는데, UAE의 사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음

-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와 기준들이 2020 두바이 엑스포 이전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로펌 관계자가 전망함

ㅇ 100% 외국인 소유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에미리트별로 특정 부문에서 추가요건이 부과되면서 허용될 것인데, 두바이가 이러한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**(두바이의 최대무역 상대국은 중국)** 두바이의 2019년 9월까지 무역액은 전년동기 대비 6% 증가하였고, 이 중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무역액은 11% 증가하였음.

ㅇ 두바이의 5대 무역파트너는 중국(10.7%), 인도(9.8%), 미국(5.6%), 스위스(4.6%), 사우디(4.1%) 순이며, 5대 교역상품은 금(12.6%), 전화기(11.7%), 보석류(8.3%), 석유류(6.7%), 다이아몬드(6.2%) 순임.

□ **(UAE정부, 첨단산업전략 수립)** UAE연방내각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과 그 응용을 이끌어 갈 첨단산업전략을 승인함.

ㅇ 이 전략은 민간부문이 미래지향적 산업과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,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, 청정 및 지속가능 산업으로 전환하고, UAE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

ㅇ 이 전략의 6대 목표는 ① UAE 지역간 균형적 발전, ② 계획 및 정책의 유연성, ③ 에미리츠간의 산업·물류서비스 통합, ④ 삶의 질 개선, 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지원, ⑥ 첨단기술산업의 개발임

ㅇ UAE의 산업부문은 2018년 총 GDP의 8.9%, 총 수출액의 20%, 고용의 9%를 담당함.

3. 자원 · 에너지 동향

□ **(ADNOC, 인도 Reliance그룹과 석유화학 합작 추진)** 아부다비석유공사는 인도의 Reliance Industries와 루와이스 석유단지에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공장을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함

○ 양 사는 루와이스 정유·석유화학 종합단지에 인접한 지역에 공장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,

- 공장이 설립될 경우 ADNOC은 에틸렌을 공급하고 루와이스의 기존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고, Reliance Industries는 운영경험과 인도 비닐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임

□ **(ADNOC, 어퍼 자쿰 유전 확장 프로젝트 추진)** 아부다비석유공사는 2024년까지 하루 1백만 배럴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80억불의 프로젝트 추진에 착수

○ 이를 위해 ADNOC은 어퍼 자쿰 해상 유전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PMC 입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짐

* 어퍼 자쿰은 아부다비에서 84km 거리 해상 유전으로 세계 4대 유전이며 해상 유전으로는 2대 규모로 75만 배럴/일 생산능력을 보유

○ 또한 ADNOC은 24개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접수하여 EPC를 위한 사전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- EPC는 크게 해상시설 설치 공사와 해저 파이프라인 공사로 구분되나 추후 보다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음

4. 건설·플랜트 동향

□ 최근 MEED지가 발표한 UAE 프로젝트 통계

ㅇ UAE가 집행중인 프로젝트는 약 1,440억불 규모이며, 집행 예정 프로젝트는 약 3,070억불 규모

- 2019년 발주액은 약 255억불로 전년 480억불 대비 크게 감소

ㅇ 참고로, MEED지는 UAE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두 번째 경제규모로 효과적인 지배체제, 통제 가능한 부채 규모, 풍부한 외화 보유액과 국부펀드를 보유한다고 평가

- 또한 비석유 부문에서 제조업부터 금융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지역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

* 주요 통계('19) : 인구 960만명, 경제성장률 1.6%, 국민총소득 4,058억불, 1인당 GDP 37,750불, 재정적자 △1.6%

□ UAE와 오만이 걸프 지역 프로젝트 지수 하향 견인

ㅇ 12.8일 기준 걸프 지역 프로젝트 지수가 398억불 순감소를 기록하여 전월 보다 1.0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- 계획/진행 중인 공사 총규모는 3.8조불로 전년보다 1.28% 감소

ㅇ 국가별로는 UAE가 △212억불, △2.26%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, 오만은 △142억불, △6.95%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

□ 아부다비, 관광 인프라 투자에 이어 운영을 위한 투자 추진

ㅇ 아부다비는 최근 10년간 관광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십억 불을 투자하여 막바지 단계에 이름

- 가장 큰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국제공항 미드필드 터미널 단지로 현재 마지막 단계이며, 개장시 25백만명의 처리능력 확대 예정

- 다른 관광 인프라 투자는 호텔, 리조트, 관광거점 확충 사업으로 워너 브라더스, 루브르 박물관 등임

ㅇ 아부다비는 관광 인프라 투자에 이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에 착수, 최근 아부다비 개발공사(ADDH)는 2개의 투자협정에 서명

- 먼저 부다페스트 기반 Wizz Air와 협정을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저비용항공사인 위즈 에어 아부다비를 취항키로 함

  * 위즈에어 아부다비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에어 아라비아 아부다비에 이은 두 번째 저비용항공사로서 유럽, 중동, 아프리카 등지로 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

- 두 번째로 뮌헨 기반 여행사인 FTI 그룹과 1.1억불 규모 협정을 체결하여 아부다비 관광객 확충을 위해 투자할 예정

  * FTI 그룹과의 협정에 따라 양 사는 영국, 프랑스,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의 주요 시장에서 아부다비로 오는 방문객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

□ ADNOC, 가샤 가스전 프로젝트 PMC 계약 체결

ㅇ ADNOC은 가샤 해상 가스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개 회사와 PMC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

- 영국 KBR이 주계약자로서 PMC 구조의 50% 비중을 차지, 캐나다 SNC-Lavalin이 30%, 프랑스 테크닙 FMC가 20%를 차지

- ADNOC는 가샤 프로젝트 PM에 3.5억불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

ㅇ 가샤 해상 가스전은 하일, 가샤, 달마 가스전으로 구성

- 20억불 규모 달마 프로젝트는 2개의 패키지로 구성, 총 100억불 이상의 하일 & 가샤 프로젝트는 5개의 패키지로 구성되며, 추후 진행될 심층 가스 추출 프로젝트는 2개 패키지로 구성

□ EWEC, 푸자이라 복합화력발전소 F3 사업자 아직 미확정

ㅇ 아부다비의 에미리츠수전력청(EWEC)은 푸자이라에 독립발전소로 건설할 F3 사업자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ㅇ F3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입찰자들의 제안사항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엔지와 일본 마루베니가 경합중

- 엔지가 16.701 fils/kWh, 마루베니가 16.812 fils/kWh로 제안했으나 기술 사양은 2GW에서 2.4GW로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짐

* 삼성물산이 마루베니 컨소시엄에 시공업체로 참가

□ 에티하드 레일, 2단계 패키지 D 사업자 선정 완료

ㅇ 에티하드 레일은 중국 CRCC & NPC 컨소시엄과 에티하드 레일 2단계 패키지 D 사업 계약을 체결(계약금액 12.5억불)

- 패키지 D는 두바이 경계에서 샤자를 거쳐 후자이라 항과 코파칸 항까지 연결되는 145km 구간 공사임

- 동 공사는 15개 터널(총 16km), 35개 교량, 32개 지하도를 포함

□ 아부다비, 신년부터 4개 교량에서 톨 징수 개시

ㅇ 아부다비 톨게이트 시스템은 ‘20. 1.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아부다비 섬과 연결되는 4개의 교량에서 요금 징수 시작

- 톨게이트가 설치된 교량은 셰이크 자예드 브릿지, 셰이크 칼리파 브릿지, 막타 브릿지, 무사파 브릿지이며

- 요금은 7am~9am, 5pm~7pm 첨두시간에만 4 디람씩 부과하며(일최대 16 디람), 비첨두시간과 금요일에는 면제

□ 이마르, 버즈칼리파 전망대 매각 협상중

○ 이마르 프라퍼티스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 칼리파의 10억불 가치 전망대(At The Top)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

- 이마르는 스탠다드 차타드를 자문사로 선정

○ 버즈 칼리파는 828 미터 높이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두 배 높고, 프랑스 에펠탑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음

- At The Top은 두바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 2018년에 약 16백만명이 입장했으며 입장료 수입은 연 1.6~1.9억불에 달함

□ 에미레이츠 항공 팀 클락 회장, 6월 사임 예정

○ 에미레이츠 항공은 팀 클락 회장이 오는 6월에 35년 동안 재임했던 에미레이츠 항공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

□ 마스다르 시티, 주거 및 업무용 공간 확충

○ 마스다스 시티는 UAE 기반 다국적 회사들과 계약하여 내년까지 1천호의 주거용 아파트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

- 아부다비의 외곽에 위치한 마스다르 시티에는 1,500호의 주택과 7백 개의 회사가 있으며 수년내 주택이 5천호에 이를 예정

5. 농업·식품 동향

□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과 대형 식료품 유통체인간 지역농산물 공급 계약

○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은 2019년 아부다비 식품박람회(SIAL)을 계기로 UAE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루루 그룹에 아부다비 농가의 지역생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함

- 협약에 따라 아부다비에서 생산된 야채와 과일 등 지역 농산물을 양측이 합의한 고정가격으로 루루 하이퍼마켓에 상시 공급할 예정

-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은 약 600개 이상의 농장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, “지역 농산물(Local Harvest)” 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됨

○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은 루루그룹의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해 시장 내 아부다비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

□ 건강위협 설탕음료(가당 음료)에 대한 개별소비세 확대 시행

○ UAE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탄산음료, 에너지드링크, 담배 등의 제품에 대해 50%~100%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왔으며, 2019년 12월부터는 설탕음료(가당음료)와 전자담배로 부과 범위를 확대 시행함

- 12월부터 설탕음료에 기존의 탄산음료와 동일하게 50%의 개별소비세가 신규로 부과되었으나,

- 다만, 최소 75%이상의 우유가 함유된 음료, 유아식, 특수식이요법을 위해 소비되는 음료, 의료 용도로 소비되는 음료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세금을 면제하기로 함

* 전자담배는 100% 개별소비세 신규 부과(자세한 내용은 1. 경제일반 참조)

○ UAE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에 해롭고 유해한 상품의 소비를 줄이며, 아울러 복지·공익 서비스 부문의 예산 확충을 기대한고 밝힘